

다문화 사회 외국인 노동자들 대변자 석창원 목사

“다문화 사회 통합, 전문가 양성해야 할 때”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지난 1995년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이 병동성당에 모여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그들은 “집승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외쳤다.
광주시 월곡동에 위치한 외국인근로자선교회(www.kafw.org) 석창원(48) 목사가 평범한 목회 활동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 목사’로 살게 된 것은 병동성당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집회를 하던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서부터다.

‘제1회 세계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이후 석 목사는 언제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왔고 지난 21일 ‘제1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다문화 사회 유공자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때 뉴스를 통해 본 노동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왔죠. 대략 150여 명이 됐던 것 같아요. 당시 의대생과 의사들의 도움

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석 목사는 이듬해인 1996년 6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교회를 세워 광주·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변자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재 교회에는 노동자와 유학생 등 외국인 200여 명이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석 목사는 이를 로부터 ‘목사님’을 비롯해 ‘형’, ‘찰스 스톤(창원석), ‘아빠’로 불린다.

“조립식 건물이지만 3년 전 외국인 노동자 30여 명이 쉬는 날마다 모여 5개월 만에 완성한 교회입니다. 몇몇 노동자들은 교회 짓는데 써달라며 몇 달 치 월급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13년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다 보니 추억도 많다. 본국에 돌아가서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걸어 석 목사를 난감하게 하는 친구, 왕복비 행기표를 끊어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자던 친구 등 셀 수 없이 많다.

석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의 인권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전남대 NGO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다문화 가치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북한 이주민들은 소외계층 중에서도 소외계층이 됐어요. 소외계층 내에서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같은 다문화 가정에서도 혜택을 받는 가정은 20%에 불과해요. 우리 사회가 할 일은 ‘숨어있는’ 80%를 찾는 겁니다.”

건강한 미래 위해 정부 적극 지원을

석 목사는 “철저한 조사나 정확한 정책집행을 거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 다문화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들이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다문화 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칼럼



박병주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 참사 현장에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온다.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이 잦아드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내, 아들에게 남긴 유언의 글들이 지구촌 인류에게 깊은 슬픔을 전해주고 있다.

“나는 꼭 살 거야.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당신과 소꿉친구며 평생을 함께 하는 거야.” 콘크리트 3개가 시루떡처럼 쌓여 비좁은 틈에서 무려 73시간을 버텼던 한 남자가 구조 직전 아내에게 중국 국영방송을 통해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다.

“사랑하는 아가야! 내가 살아난다면 내가 널 사랑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렴.” 4개월 된 아기를 안고 죽어있

가치있는 죽음

던 엄마가 아기에겐 유언장 대신으로 기록된 유언이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저 없이도 행복하게 사세요.” 매물된 학교 건물에 갇혀 사투를 벌이면서 날카로운 것으로 꼭꼭 눌러 쓴 어린 학생의 글이다. 자신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라는 부탁이었다.

가슴이 미어지게 하는 이 슬픈 사연들은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나 미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 때문일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한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와 세상을 떠나 새로운 여행지로 출발하는 것으로 본다. 죽음이란 허무나 종말,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 항구에 묶여있는 배가 닻줄을 풀고 닻을 올려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교량인 것이다.

살나원의 저자인 존 밀턴(John Milton)은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열쇠다”라고 말했으며, 성서학자인 에드워드 영(Edward Young)은 “죽음은 인생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을 남겼다.

먼저 하늘로 떠난 이들의 재회할 날을 소망하며 현실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젊은이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순국했다. 육군 제6사단 학도의용군과 해병 제1연대가 연합하여 화천 파로호에서 증군군 1개 사단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적이 있다. 말없이 순직한 학도의용군, 그 영혼을 기리기 위해 세운 자유 수호의 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다.

“길손이여, 자유인에게 전한다오. 우리는 겨레의 명령에 복종하여 이곳에 누웠노라고.” 어찌 이들의 죽음을 패배라고 하겠는가. 죽음이 라는 긴박한 고통 속에서 그들의 남긴 유언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승리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광주 열린교회 담임목사)

한국종교문화학회 ‘종교와 성문화’ 학술대회

오늘 전남대서

한국종교문화학회는 30일 오전 10시 전남대 용봉문화관 4층 세미나실에서 ‘종교와 성문화’를 주제로 제6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종교와 성문화’에 대한 전남대 윤가현(심리학과) 교수의 기초 발표를 시작으로 불교(영남대 이민용 교수)와 이슬람교(동덕여대 오은영 교수), 그리스도교(기독교 성문화원 김해도 목사) 관련 논문 발표 순으로 이어진다.

토론자로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박건주 박사, 조선대 송경근 교수, 광주교대 강성열 교수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종교문화학회는 지난 2005년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주도로 창립된 한국종교문화학회가 전신으로, 지난 1월 명칭이 변경됐다. 문의 062-530-3910.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스님들의 밥상’이 진짜 웰빙

수행자들의 음식 철학 담은 ‘밥맛이 극락이구나’ 책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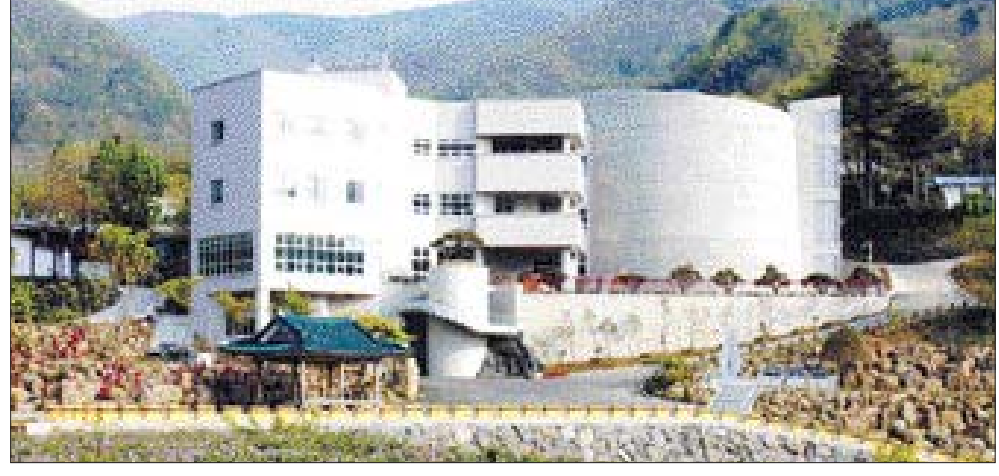
스님들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면 의식주부터 삶의 어느 것에도 결함이 없어야 한다. 일상 생활 모든 것이 수행이다.

스님들에게 음식은 수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보니 재료부터 요리법에 이르기까지 청정한 식생활은 사찰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광우병 공포,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물질 가공식품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현대인들에게 무공해 사찰음식은 왜곡된 음식 문화를 되돌아 보게 한다.

자유기고가 함영 씨가 엮은 ‘밥맛이 극락이구나’(산티)는 전국 사찰에서 만난 스님 서른 명의 음식에 대한 철학과 추억, 수행을 통해 터득한 진짜 ‘웰빙’ 요리를 소개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책에는 갈증 해소와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난 여름철 채소 가지에 모차렐라 치즈를 얹은 ‘가지 파스타’, 녹차와 두부가 어우러진 ‘녹차두부콩국’ 등 대안스님이 현대인의 기호에 맞게 개발한 ‘웰빙 퓨전 음식’들이 소개돼 있다.
이 책에서 스님들은 한결같이 “요리는 단순할수록 자연에 가깝고 자연에 가까울수록 건강식”이라고 강조한다.
무시래기 나물에 대한 예찬론을 펼치는 양산 통도사 광우스님, ‘누룽지 치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불교방송 진행자 성진스님, 매생이 수프를 추천한 해의 포교 불교잡지 ‘들리미’ 마인드 편집장 일담스님 등 출가수행자의 사찰음식에 얽힌 이야기가 펼쳐진다.



전남동부지역 복음 전파의 산실
광양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 개관

전남 동부지역 최초의 기독교 복음지인 광양시 진상면 황리동 웅동마을에 ‘광양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하 기념관)이 28일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웅동마을은 전남 동부지역에서 최초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곳이며 1905년 선교사가 아닌 민간인들에 의해 사방방 예배를 통해 기독교가 태동한 곳이다.
광양시는 웅동마을을 성지순례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8월 사업비 39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69㎡ 규모의 기념관을 건설했다. 기념관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전시실, 광양기독교 100주년 전시실, 한국기독교 선교사 기념관, 광양출신 순교자 기념관, 대예배실, 숙소, 식당 등을 갖췄다.
특히 이 기념관에는 100주년 상징탑과 일제강점기와 여순사건, 한국전쟁에서 순교한 광양출신 순교자 안덕운, 양용근, 조상학 등 세 명의 목사 추모비도 건립해 순교정신을 계승한다.
/광양=김충호기자 chkim@

정 보
선택주무 한국 미,일,중,유,러 특수기타(교과가능,신속매달)
T.010-8698-4904
출장수리
페인트 아파트 주택 상가 내외부 페인트공사, 옥상방수상당, 무료견적현장, 부부사공 "일일공사"
T.652-6554, 018-642-6554
개업/성업
생태야생태야 대표 박승규 북구문암동 삼호(정문안)생태야, 캐틀·아구림 전문점 T.511-0227
노비전지 대표:마현석 광산구도천동 하남공단8면도로 주유소옆
T.062-952-6751, 011-641-6751
완전 성인비디오 CD, 2007년 최성경음, 고별다량보유 각나라별

세주수학전문학원 대표:김현주 화정동 영주사거리 광주은행앞동쪽, 초,중,고,대학 수학,수강생수시모집,연정님 T:1개인지도 T.385-0069
보라매대강구장 대표:김종민 화정동 광주은행사거리 서부축산2층 최신행 당구다이설치장비,아름다운이끼 최고의 세미세제곱 T.011-611-2121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이형일
TEL:061-334-4100
FAX:061-334-9010
C.P:011-9603-0456
남명 대리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토피가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나타나다!!
머리만 감으면 발모되는 팔모수 탄생!!
◎팔모수(八毛水)란?
특수제조공법을 이용하여 추출된 팔모수(八毛水)는 일반 물 분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모공 속에 쉽게 침투되며, 일정기간 사용하게 되면 가려움과 탈모의 원인이 되는 각종 노폐물이 제거됨으로써 두피를 개선시켜주는 누발 세척용 기능성제품입니다.
두피트러블의 천아통일
비듬제거/탈모모춤/발모/양모
나주시, 함양군, 광주지역 경찰공무원 참가자 전원 발모
6개월 후
(주)사이언스위터 광주지사 ☎010-4499-6788 | 각시·군 대리점 모집
☎(062) 367-6788

음이온!! 공기정화
웰빙 인테리어 입체액자
자연풍경/새소리/파도소리/목포소리/갈매기소리 등 음악효과까지~
음이온 공기정화, 세균박멸, 탈취, 색정중복
이제는 실내공기정화 심대한 음이온 "건강공기비타민"으로 바꾸세요!!
주부영양사필요없음 부인관리사자격증필요
(주)비에스시스템 TEL:0621251-2235, H:P:019-374-1234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신용대출 안내
cti financial 씨티은행과 더불어 씨티그룹의 가족입니다.
대출대상: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출금액: 최대 1억 5천만원
대출기간: 최대 10년
대출금리: 최저 1% 이상
대출수수료: 없음
대출보증: 보증료 없음
대출신청: 전화, 방문, 인터넷
대출상담: 010-9469-6115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전액 할부 판매
- 승용/수입차/상용/특장/장비/산업재
- 전차종 할부판매
- 이천비/등록비/보험료 포함
- 전액할부(돈 없이 차량구입), 무이자0개월/대출이자 월 100만원 당 4,500~7,500원
- 무상 A/S 5개월 5,000km / 1년 20,000km
- 당일출고/최상의서비스(엔진오일/맞선오일/시트커버)
- 품목제공
- 전국 최대 규모 매장 보유/국내·외 차량 대량보유
▶수출 차량 대한민국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현대 포터 1.25톤 2003년~2004년까지, 포터 슈퍼캡, 일반캡, 덤프, 카고, 탑차 2003년~2008년
포터II 슈퍼캡, 일반캡 2004년~2008년까지 덤프, 카고 매입
마이다 2.5~25톤 2003년~2007년까지 덤프, 카고 매입
현대·대우·기아 4.5~25톤 초장축 2003년~2007년까지 덤프, 카고 매입
현대·대우·기아 8톤 11톤 16톤 18톤 25톤까지 덤프카고 추레라 헤드 매입
(주)나플레용 무역상사·수출모터스 ☎(062)651-6006
위치: (호남 최대 풍암 3단지) H.010-2954-6990